

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

현오석 · 고영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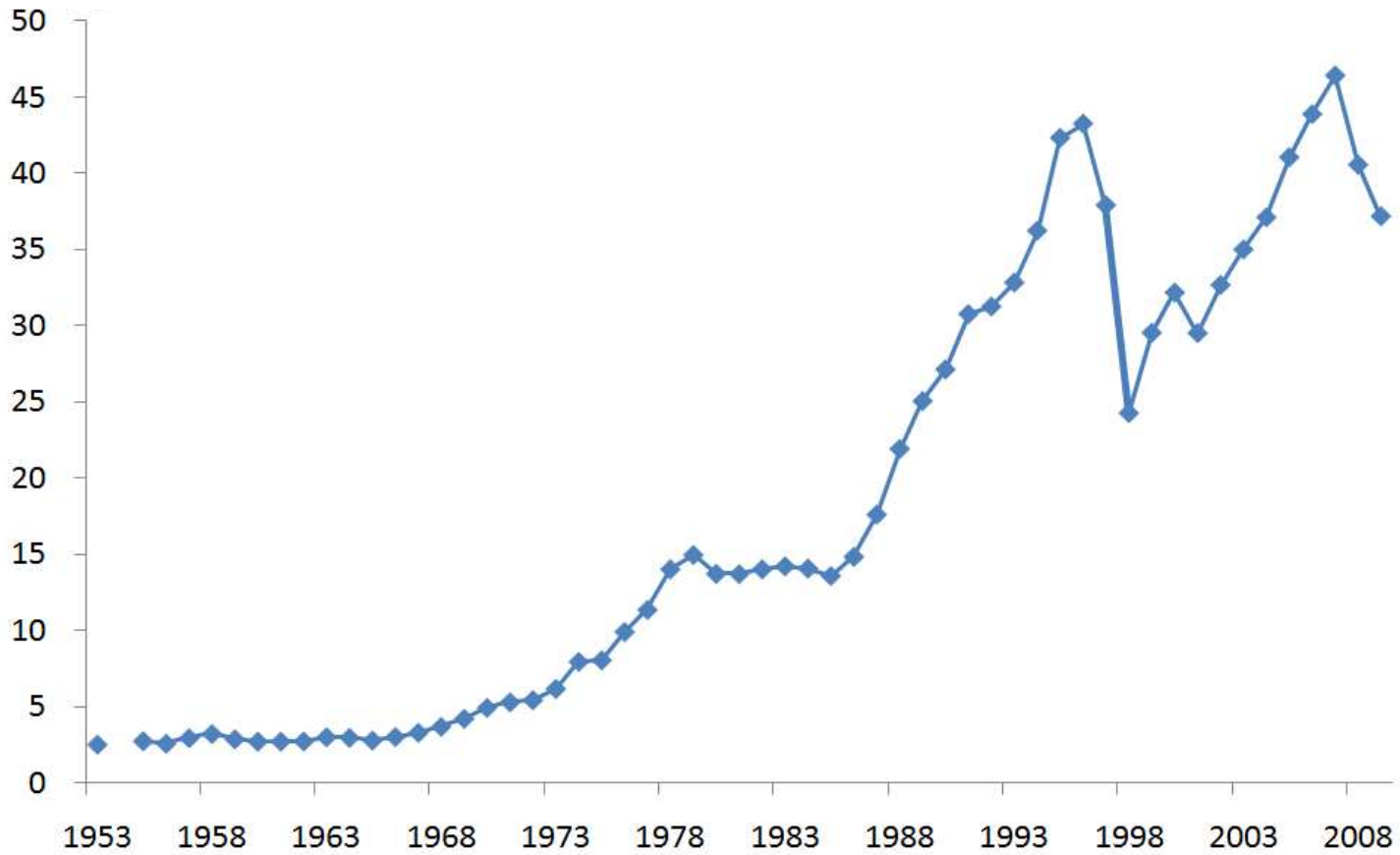
2010. 12. 3

Korea's Leading Think Tan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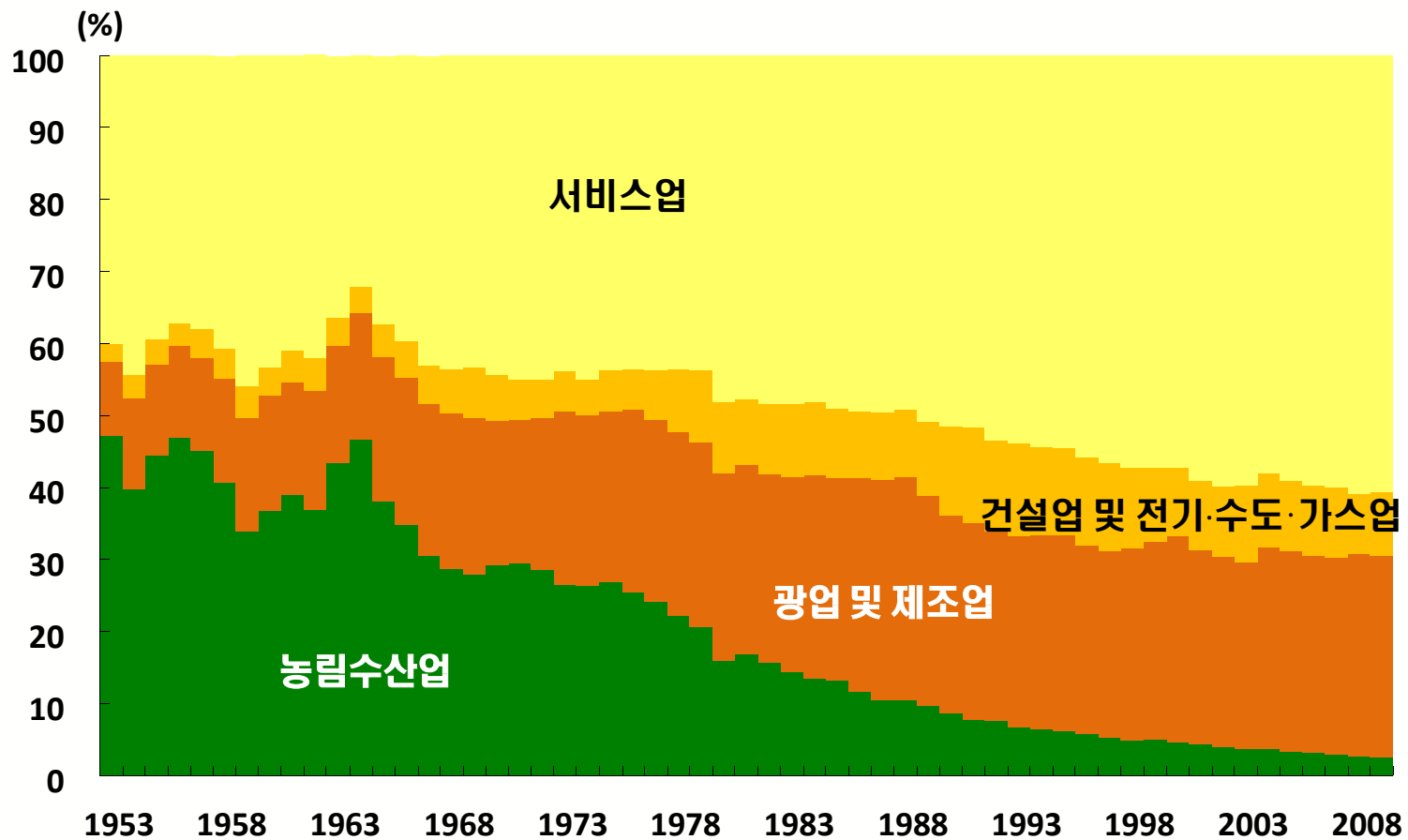


■ 1인당 GDP

(미국 = 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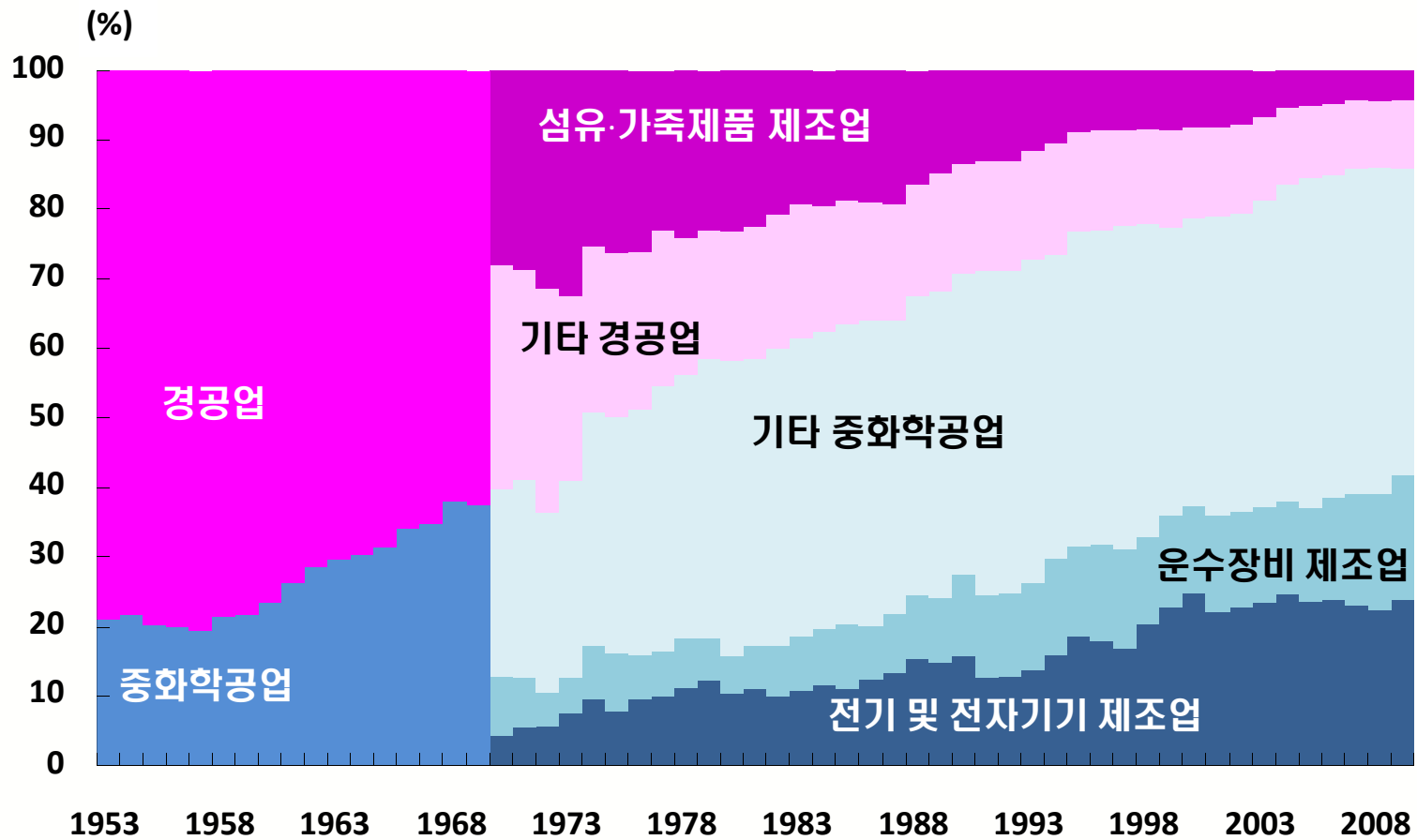


■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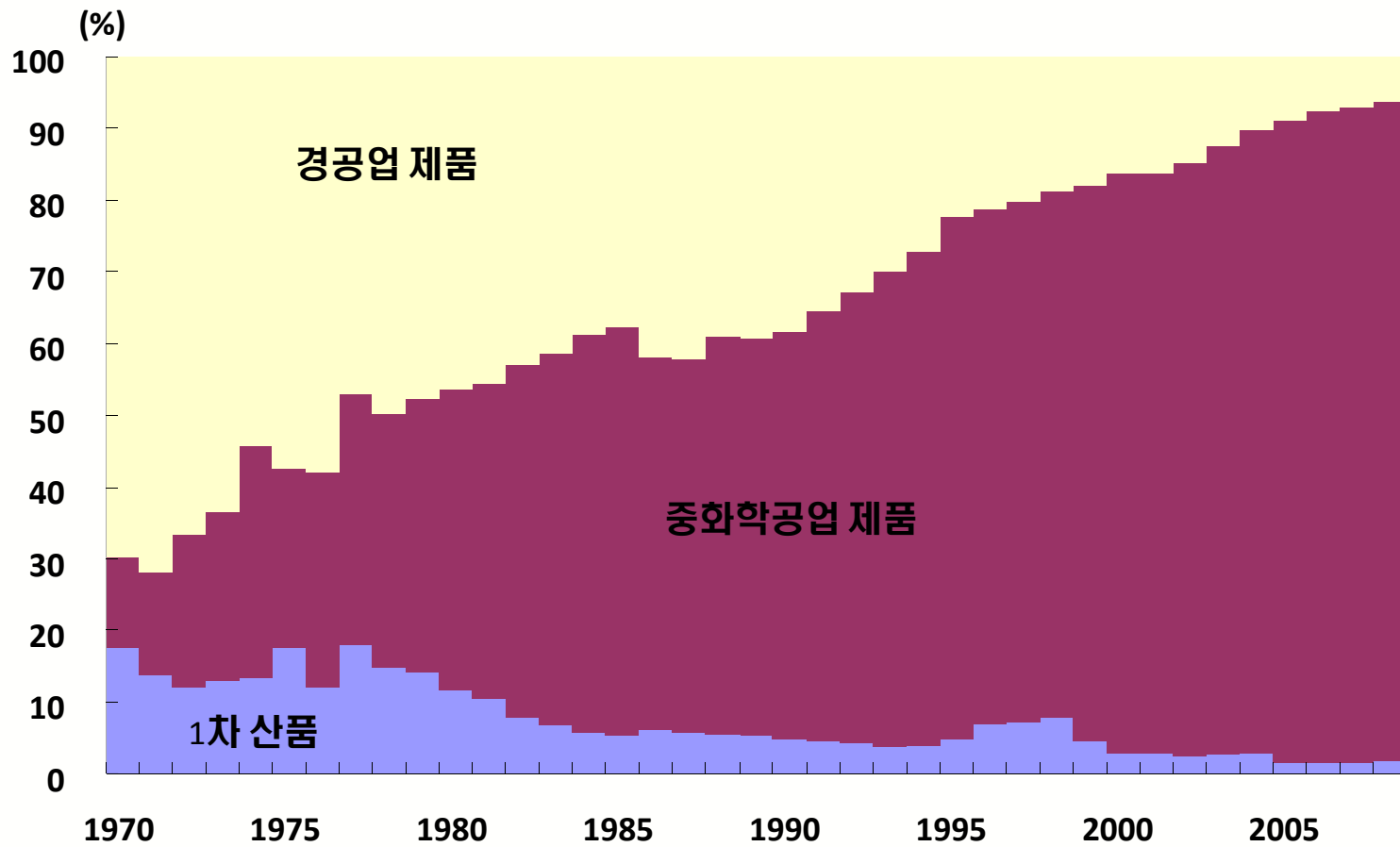


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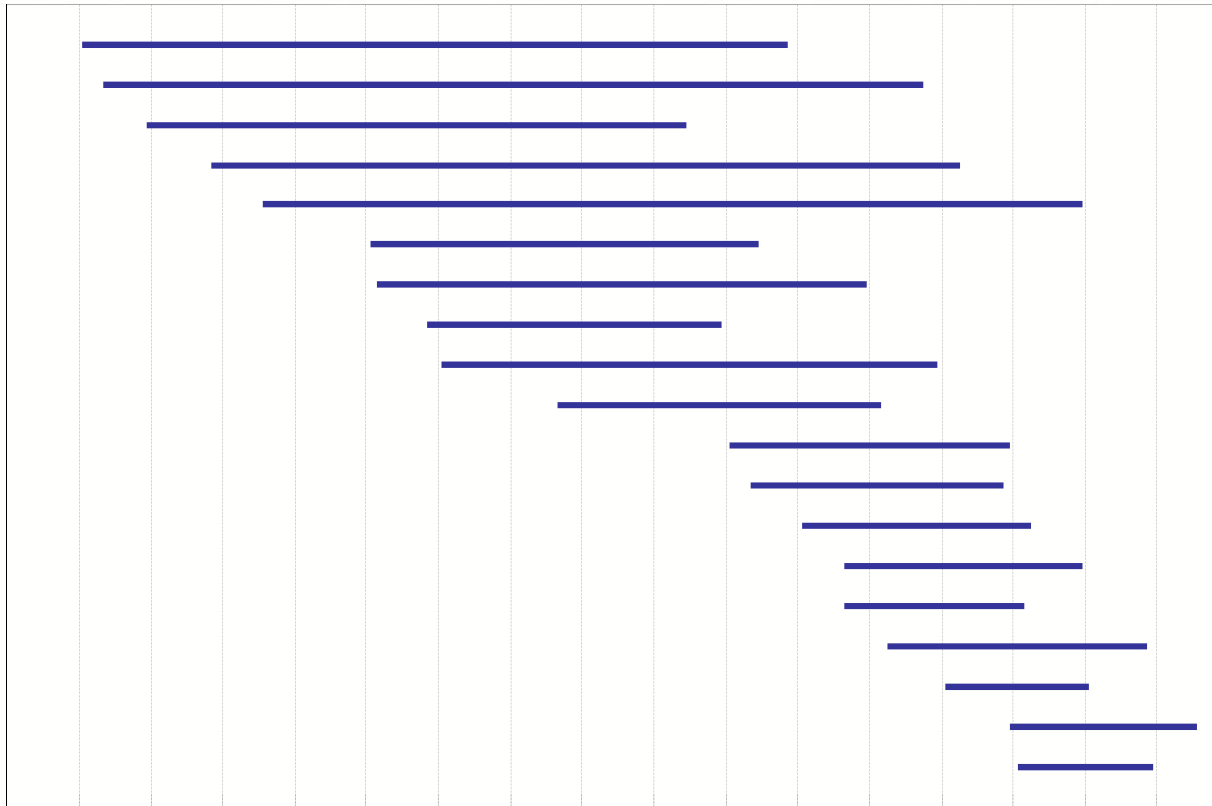
■ 제조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



■ 수출상품 비중



산업화 속도의 국제비교



네덜란드(98)
 덴마크(114)
 벨기에(75)
 프랑스(104)
 아일랜드(114)
 미 국(54)
 독 일(68)
 캐나다(41)
 노르웨이(68)
 스웨덴(45)
 미 국(39)
 이탈리아(34)
 베네수엘라(32)
 스페인(33)
 핀란드(25)
 포르투갈(36)
 대 만(20)
 말레이시아(26)
 한 국(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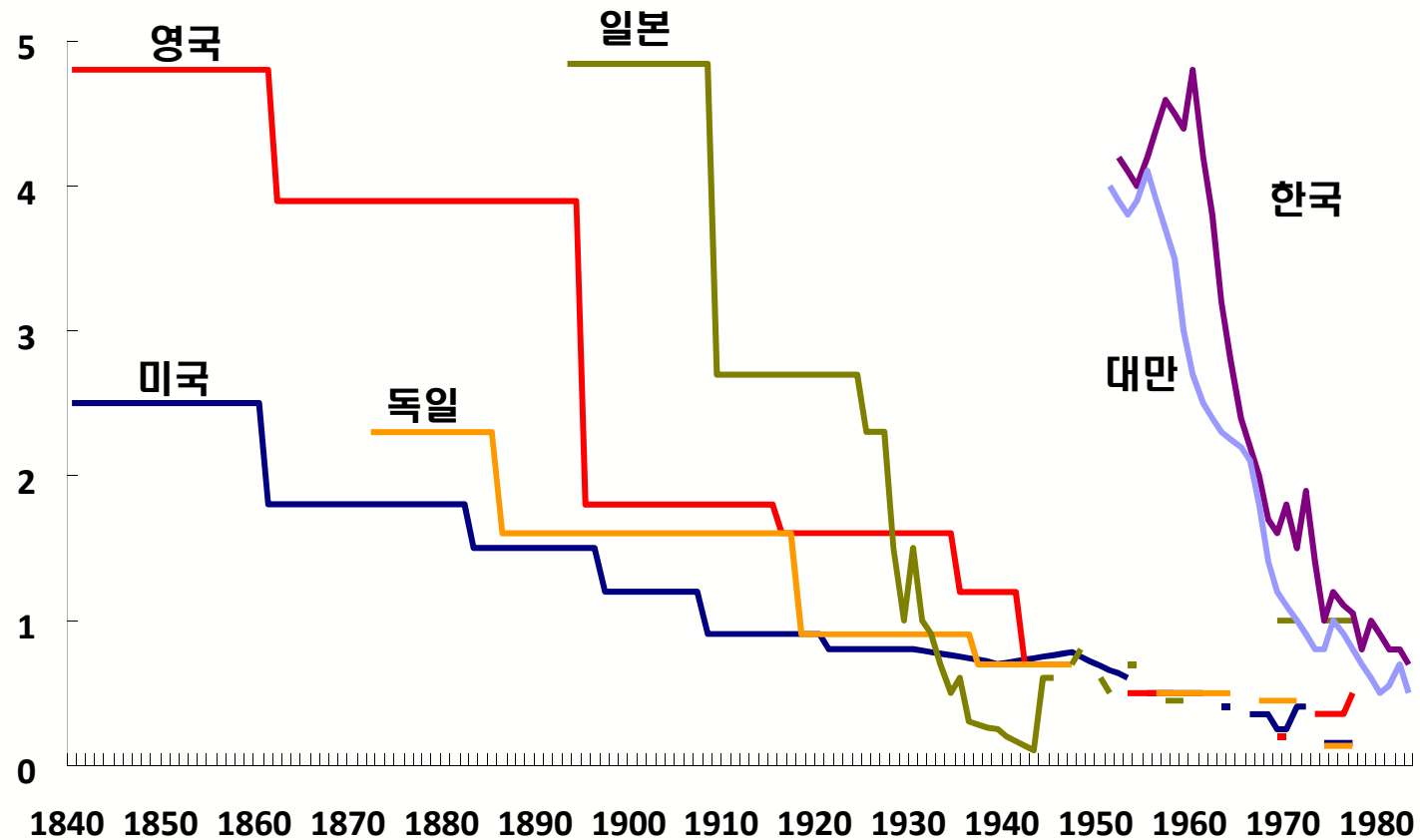
1830 1850 1870 1890 1910 1930 1950 1970 1990

주: 1) "산업화"는 "농업부문의 비중이 50% 이상에서 20% 이하로 하락하는 과정"으로 정의.

2) () 안의 숫자는 산업화에 소요된 연수.

자료: 유정호(1997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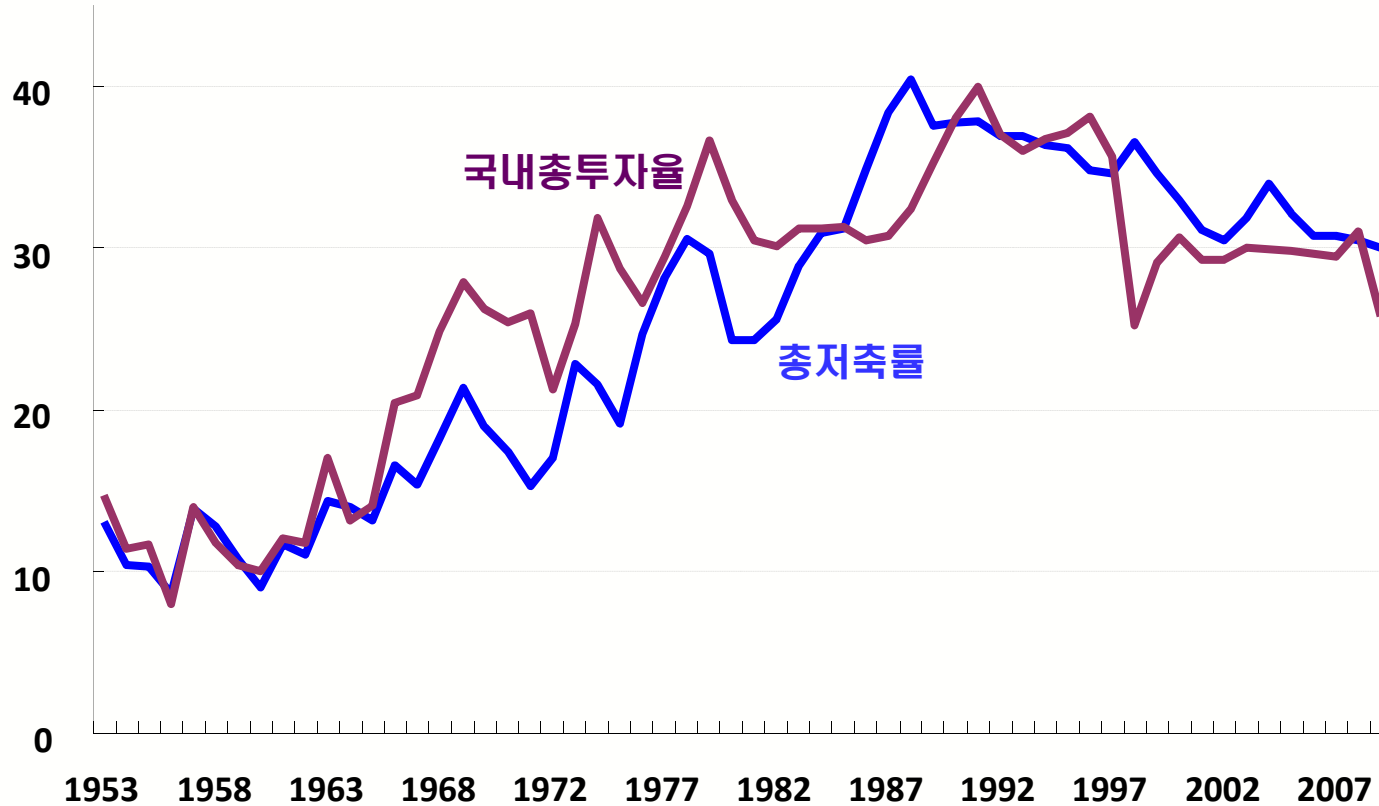
Hoffman ratio의 국제비교



주: Hoffman ratio는 중화학공업 대비 경공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의미.
 자료: Jong-il Kim(2002).

■ Krugman(1994):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보다 자본축적에 주로 기인

(GNDI 대비, %)



■ 그러나 한국의 생산성 증가속도는 매우 높은 수준

(단위: %)

	GDP 성장률	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	성장에 대한 기여	
			근로자 1인당 자본축적	TFP 증가
전 세계(83)	4.0	2.4	1.2	1.3
선진국(22)	3.3	2.1	1.1	1.1
중국	7.2	5.4	2.1	3.4
한국	7.1	4.7	2.9	1.8
1961-1970	7.7	4.7	3.0	1.6
1971-1980	7.3	4.6	3.8	0.8
1981-1990	8.6	6.1	2.8	3.4
1991-2000	5.8	4.1	2.7	1.5
2001-2004	4.5	2.9	1.3	1.5
동아시아(5)	5.7	2.8	1.8	1.0
중남미(22)	3.7	1.0	0.6	0.4
남아시아(4)	4.9	3.0	1.1	1.8
사하라 이남 아프리카(19)	3.4	1.0	0.6	0.3
중동 및 북아프리카(9)	4.4	2.0	1.2	0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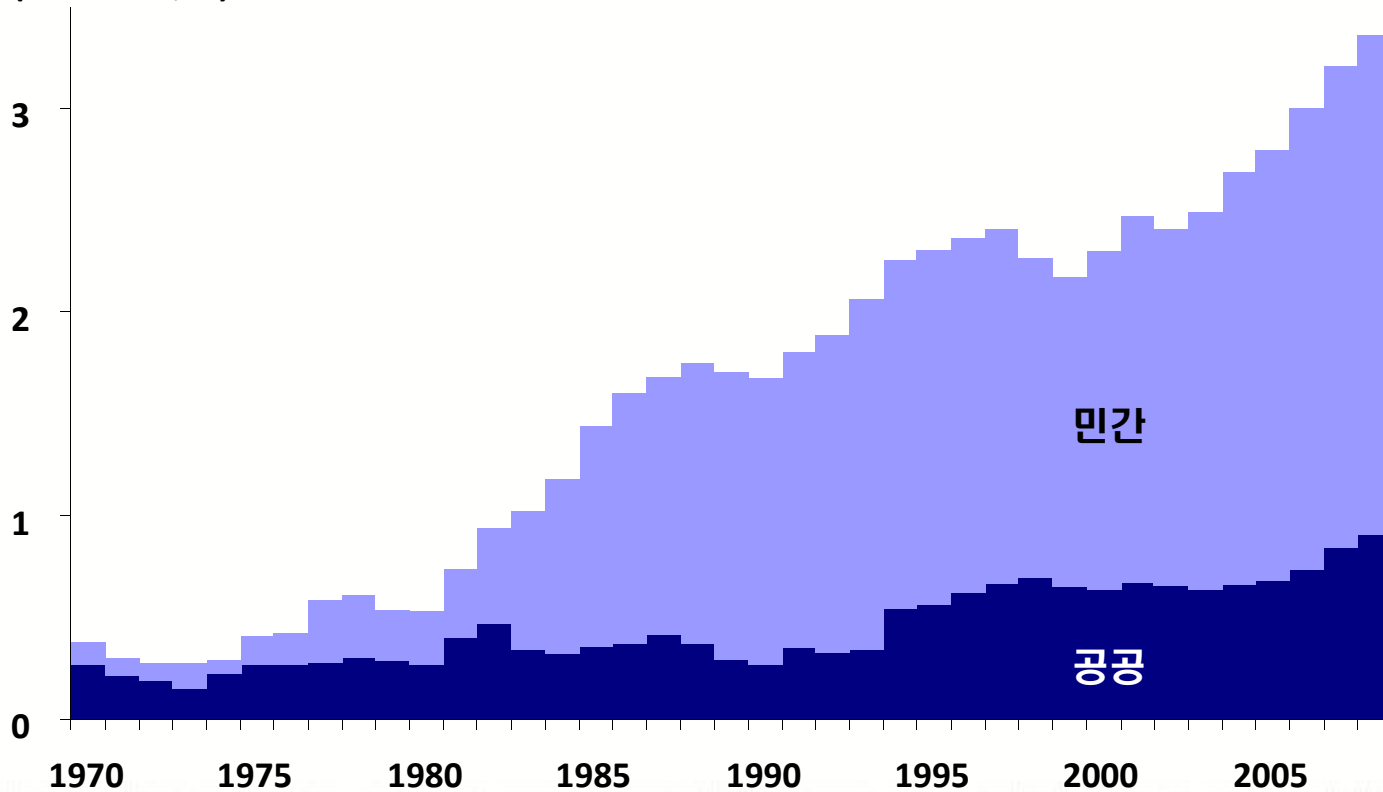
자료: Hahn and Shin(2010).

- **기술진보**(technological progress)
 - **국내의 연구개발 활동**
 - **해외기술의 도입**
 - 선진기술이 체화(體化, embodied)된 자본재의 도입
 - 외국기술의 직접적인 구입
 - 해외직접투자(FDI)
 - **수출을 통한 학습**(learning by exporting)
 - 선진국의 제품개발, 제품생산, 마케팅 등을 습득

- **자원의 재배분**(reallocation of resources)
 - **생산성이 낮은 부문(기업, 산업, 지역)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이동**

- 1960-1970년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
- 1980년대 이후 민간이 연구개발활동을 주도

(GDP 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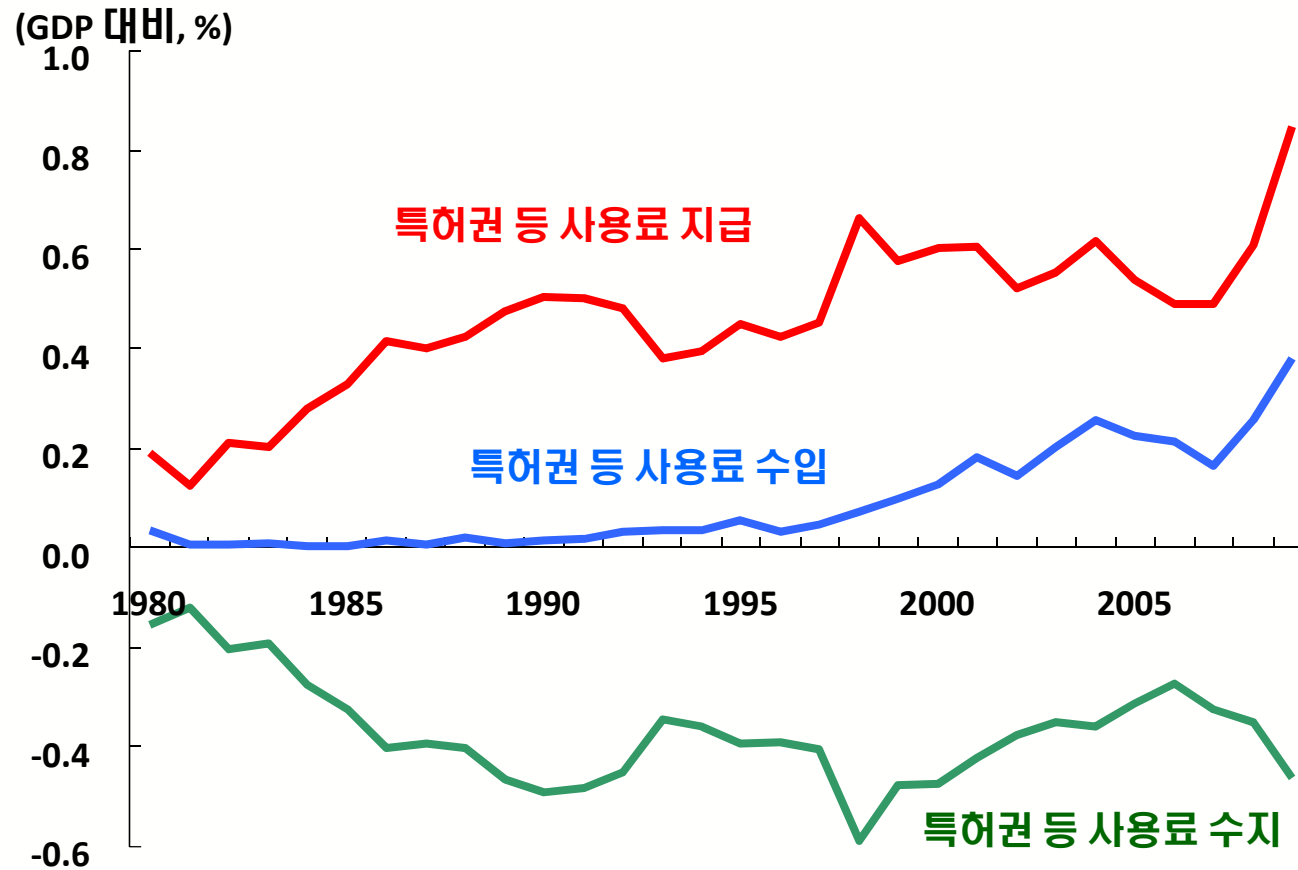


■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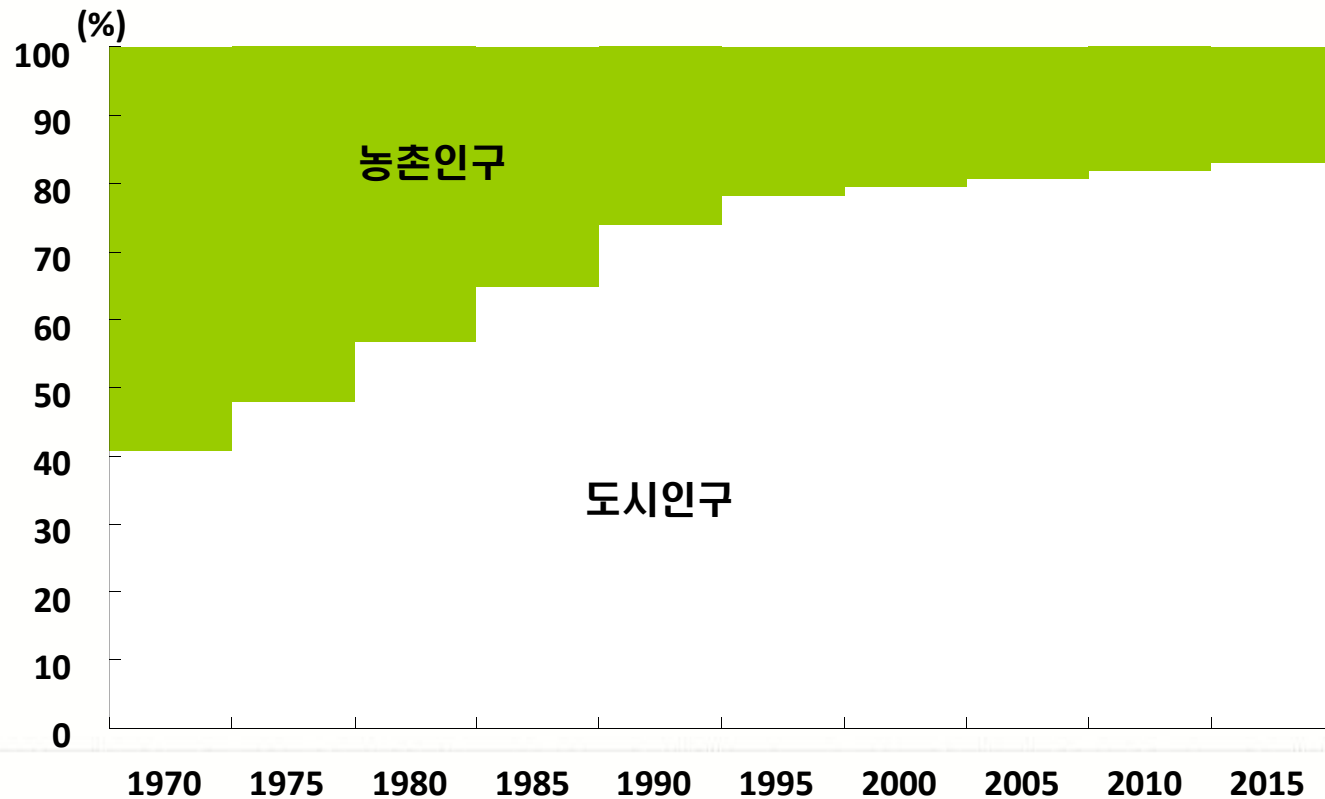
(단위: 10억달러, %)

	1970	1980	1990	2000	2009
총수입 (총수입 대비, %)	2.0 (100.0)	22.3 (100.0)	69.5 (100.0)	160.5 (100.0)	323.1 (100.0)
원자재 수입 (총수입 대비, %)	1.0 (52.9)	14.5 (65.0)	38.2 (54.9)	81.6 (50.8)	186.1 (57.6)
자본재 수입 (총수입 대비, %)	0.5 (23.1)	5.1 (23.0)	25.6 (36.8)	64.6 (40.2)	104.0 (32.2)
내수용 자본재 수입 (총수입 대비, %)				37.2 (23.2)	59.1 (18.3)
(GDP 대비, %)				(7.0)	(7.1)
(총고정자본형성 대비, %)				(23.2)	(24.2)
(설비투자 대비, %)				(56.7)	(77.8)
소비재 수입 (총수입 대비, %)	0.5 (24.0)	2.7 (12.1)	5.7 (8.2)	14.0 (8.7)	32.7 (10.1)

■ 외국기술의 직접적 구입 역시 기술진보의 중요한 요인



- 전반적으로 자원이 신속적으로 재배분되어 온 것으로 보임.
 - 노동시장: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노동력 이동, 제조업 내에서도 노동이동이 원활(Kim and Topel, 1995)
 - 지역 간 이동: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



- **지금까지 자원의 재배분은 기술진보만큼 생산성 향상에 기여**
 - **김종일(1998): 1970-1986년간 TFP 증가율은 연평균 1.45%**
 - 이 가운데 0.74%는 기술진보, 0.71%는 자원의 재배분에 의한 것
 - **특히,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더욱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**

- **그러나 자원의 신축적 이동을 저해하는 정책도 적지 않았음.**
 - **중화학공업을 인위적으로 육성(1973-1979년)**
 - **부실기업을 반복적으로 구제**
 - 1973년 8·3조치, 198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
 - **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실시(1980년대 이후)**
 - **금융억압 (1960년대-외환위기 이전)으로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의 발달을 저해**
 - **수도권 집중 억제정책(1970년대 이후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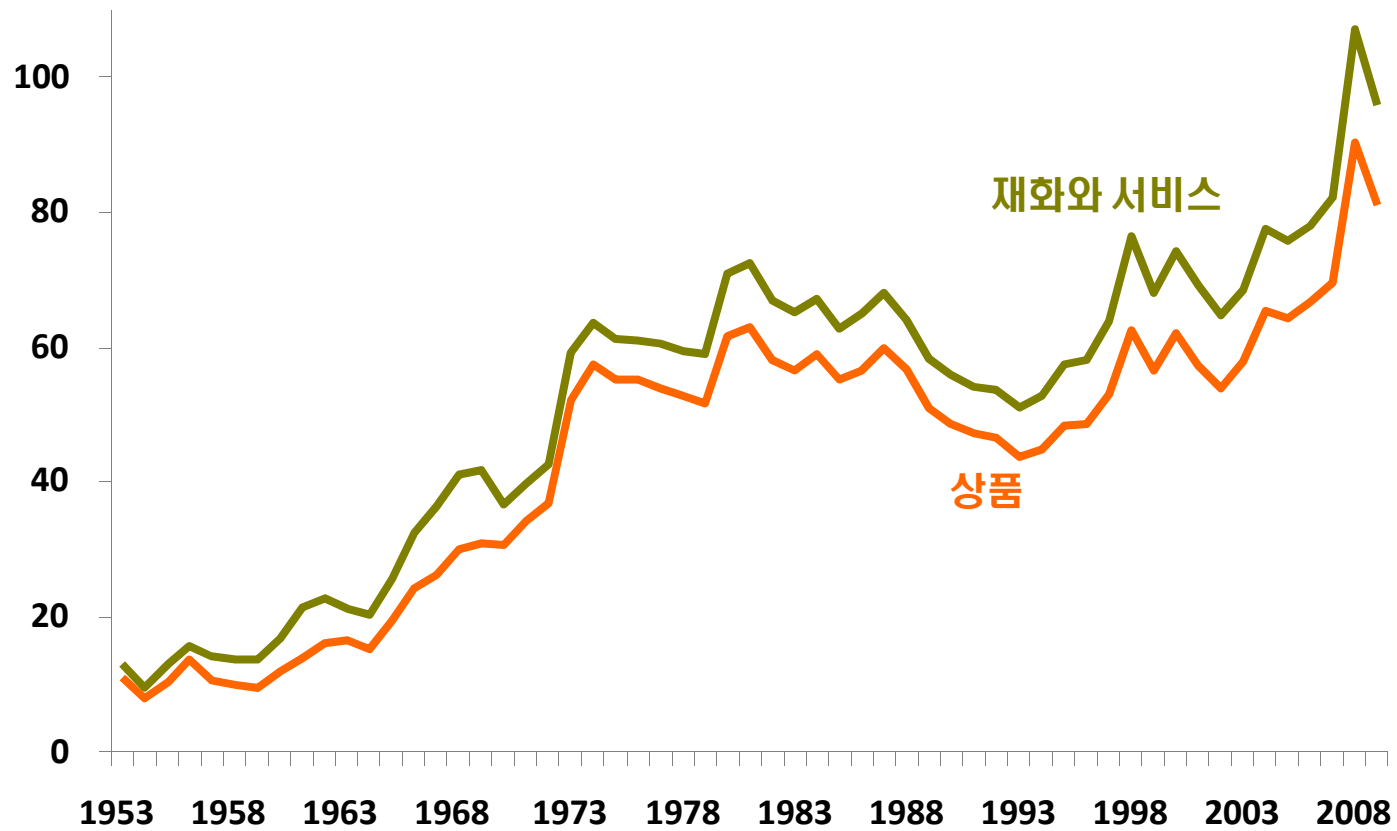
- 국제무역은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동력

- 기술진보를 촉진
 - 혁신활동 촉진
 - 혁신활동의 수익 증대,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
 - 선진기술의 도입통로
 - 외국 자본재 수입, 선진기술 구입, FDI, learning by exporting

- 자원의 재배분을 촉진
 -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동태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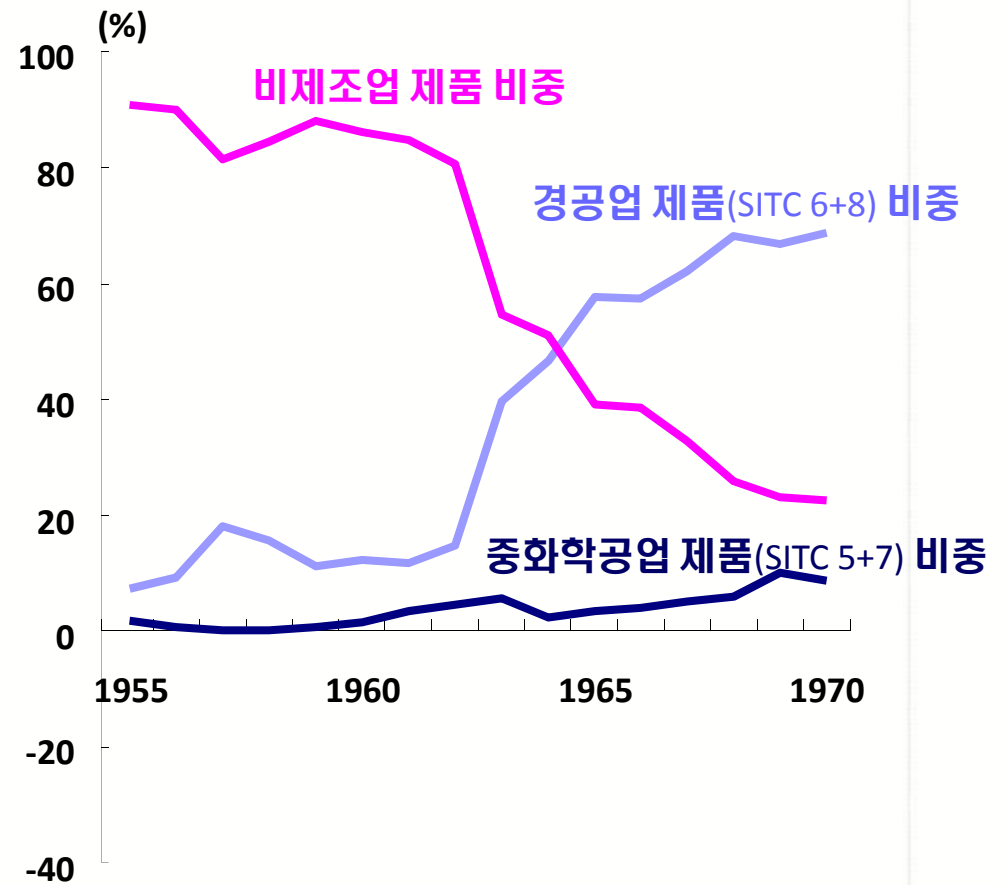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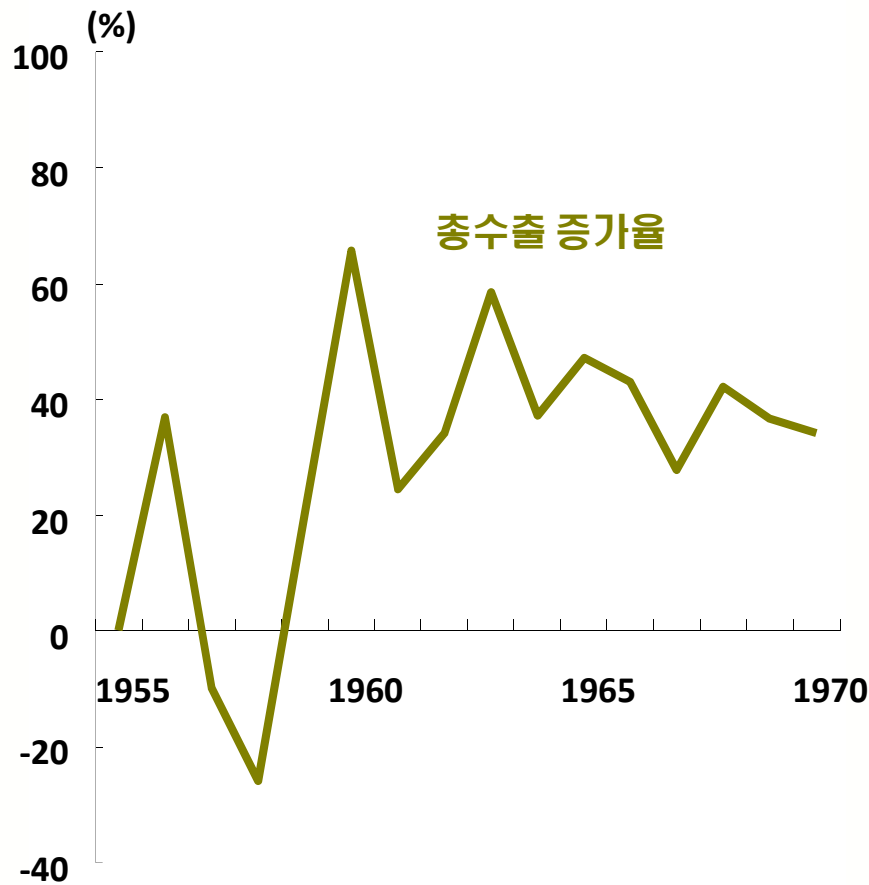
무역규모의 확대

(GDP 대비, %)



1960년대 수출의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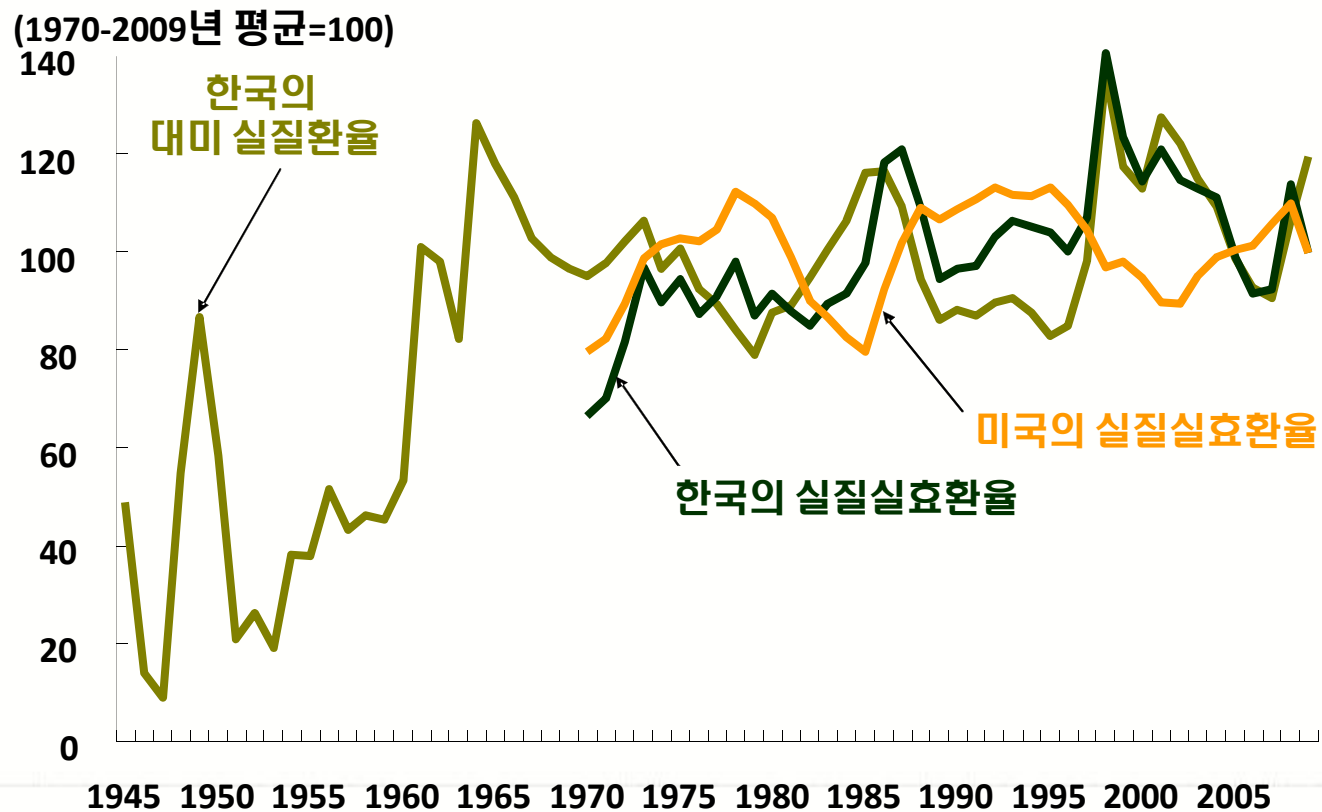
1960년대 초부터 경공업 중심 수출이 급증



자료: Jungho Yoo(2008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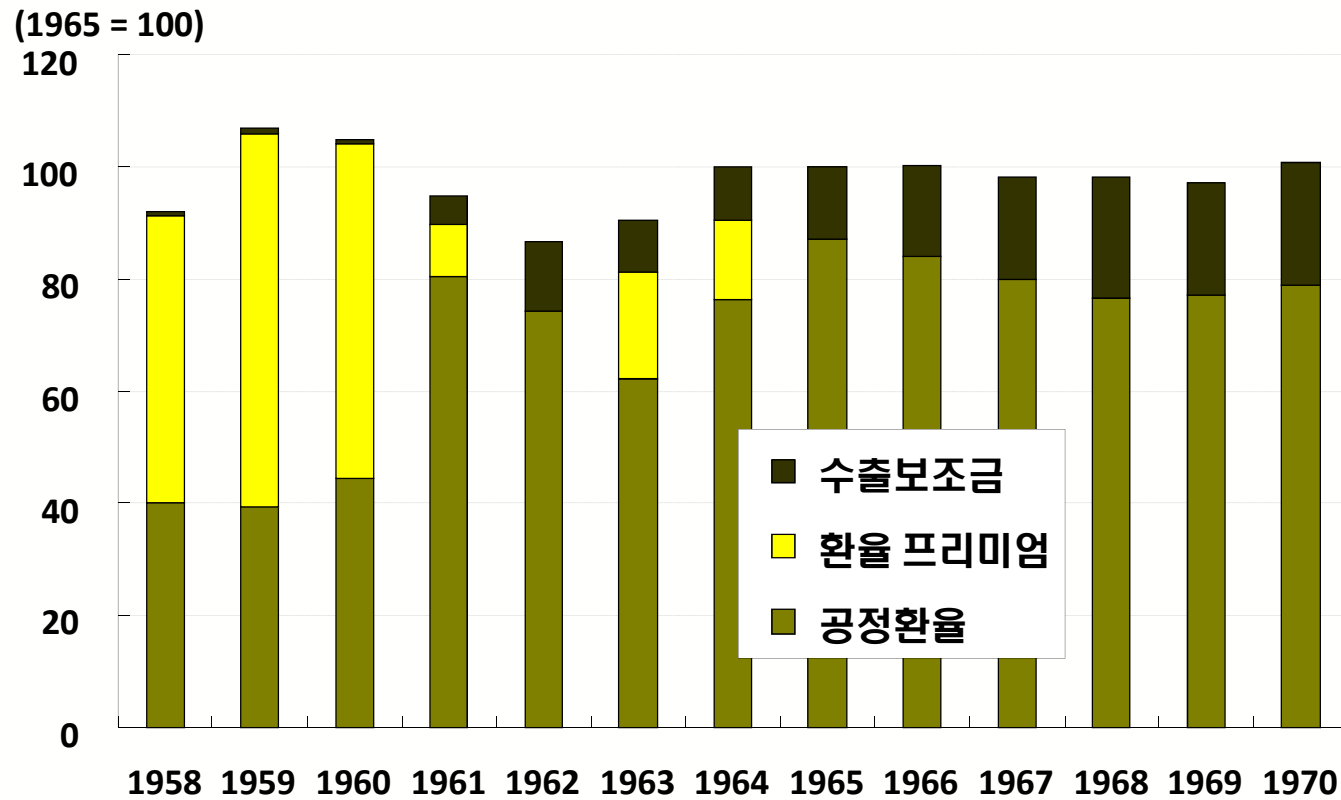
■ 원화의 과대평가를 대부분 해소

- 1960년 2월~1961년 2월 중 3차례 절하: 50원/달러 → 130원/달러
- 1964년 5월: 130원/달러 → 255원/달러



■ 수출업자의 금전적 유인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하였음.

수출금액 1달러당 수출업자의 실질소득



자료: Frank, Kim and Westphal(1975).

■ 환율개혁

- 영합(零合, zero sum)의 성격을 갖는 경제적 지대(economic rent)의 발생원천을 봉쇄하고 생산적인 정합(正合, positive sum) 활동을 촉진(Jones and SaKong, 198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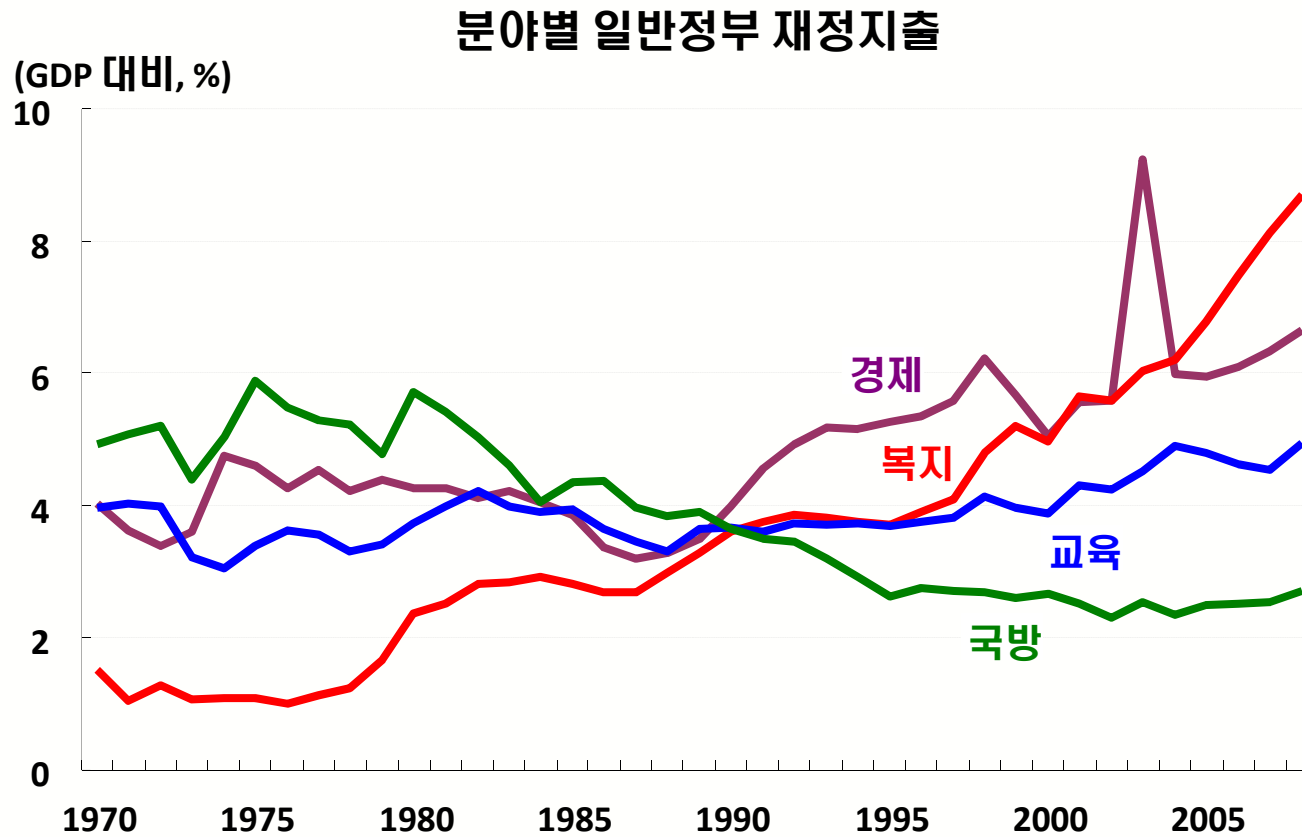
■ 수출진흥정책

- 당시 광범위하게 시행되던 수입규제가 낳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 수행(Westphal and Kim, 1982)

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을 설명하는 공통분모는 제조업 수출(Radelet, Sachs and Lee, 1997)

- 수출업자에게 적용된 사실상의 자유무역체제가 수출과 성장에 도움을 주었으며,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공통분모가 아님.

■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정부투자를 지속



- **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시장원리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운용**
 - 특히, 환율정책 및 수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시장왜곡을 최소화
 -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주력
 -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거시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음.
 - 무리한 환율정책으로 위기를 자초한 중남미 국가와 대조
 -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로 외환위기를 활용

- **경제 외적인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**
 - 개도국 중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정치·사회여건
 - 비교적 공평한 소득분배(토지개혁, 6·25전쟁)
 - 실적주의(merit system)에 입각한 관료제도(예: 행정고시)

- **대외개방 확대: 서비스 분야 및 농업부문 개방 가속화**
- **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**
 - **생산적 정합(正合, positive sum) 활동 촉진**
 -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강화
 - **혁신기반 확충**
 - 공공 연구개발 시스템 개편, 교육제도 개혁
 - **자원 재배분의 신축성 제고**
 - 특정 부문(중소기업, 농업 등)에 대한 보호 지양
 - 공간적 재배분을 저해하는 정책(수도권 규제 등) 지양
- **거시경제 안정화: 국내외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 증진**
- **사회정책 강화**

Korea's Leading Think Tank



KDI KDI KDI KDI
KDI KDI KDI KDI
KDI KDI KDI KDI

